

땅끝까지 바른 복음전파 위해 매진

(사)한국기독교교단협, 제31대 대표회장 정부용 목사 취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회의 제31대 대표회장 정부용 목사 취임예배가 지난 12월 1일(목) 저녁 7시 30분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벤엘교회(담임 정부용 목사)에서 드려져 혼탁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등 성경을 왜곡하는 집단의 침투를 막고 땅끝까지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취임예배는 동 협의회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교의 목사(재정정책위원장)의 대표기도, 이상용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대림벤엘교회 찬양대의 찬양, 동 협의회 고문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고전 10:31 말씀을 본론으로 한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고 준행해야 할 원칙과 판단기준”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 31대 대표회장 정부용 목사의 취임사가 이어졌다. 정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최선을 다해 한국교회와 회원들을 섬기고 이단 사이비 배격, 협의회의 중요사업인 복음전도와 선교사업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특별기도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본회와 회원교단을 위해’, ‘대림벤엘교회를 위해’ 이한영 목사, 정덕화 목사, 안호영 목사가 각각 주례별 기도를 인도했다. 축하순서로 고문 최보기 목사와 김상용 목사, 공병철 목사가 축사와 격려사로 대표회장 정부용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특히 한국교계 연합기관 최초의 여성 대표회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회원 교단으로서 섬길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어 조용목 목사는 31대 대표회장 정부용 목사에게 취임축하패를 전달하고 발걸음을 축복했다. 이어 대림벤엘교회 에이레네선교단 어머니 찬양대의 축하,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의 광고, 황상호 목사(예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 연세대 특별 공로상 수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 주최

‘2016년 연세 교육인의 밤’ 행사
연세대 총장 김용학 박사가 수여

본 교단 제80차 총회장을 지낸바 있는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연주 은혜와진리교회)는 지난 12월 5일(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 주최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16년 연세 교육인의 밤’ 행사에서 연세대 총장 김용학 박사가 수여하는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

임 목사의 수상 배경으로는 모교를 졸업한 이후 교육대학원 문헌회 활동을 통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을 뿐 아니라, 연세대 총동문회 부회장(운영)으로 교육대학원 제19대 대표회장을 재임하는 동안, 모교와 동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임 목사는 목회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중진으로 성장,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돌보는 것을 비롯하여 그늘진 곳의 구제활동에 헌신해온 점 등 사회봉사활동의 뛰어난 점이 교육자라는 관점에서 모교를 크게 빛냈었다는 공적으로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심사위원 전원 일치 찬성으로 특별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시상식장에는 현 교육대학원 원장, 부원장을 비롯하여 교수와 전 현직 동창회 회장단과 회원, 그리

고 수상자가족 등 성원을 이룬 가운데 시종 바이올린 연주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뷔페로 마련된 만찬 음식마저도 금메달 같아 이었다며 한 참석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수상자 대표로 강단에 선 임종달목사는 수상 소감으로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수상자로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보다는 오히려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보람받은 모든 것이 충만하여 정점에 이름을 의미하며 이는 거의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진 상태를 뜻하는 반면, 하현달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제 나이가 70세를 넘어섰지만 마치 저는 하현달과 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전한 뒤, “앞으로 더욱 우리 사회와 모교 발전에 헌신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6 연세교육인의 밤
일시 : 2016. 12. 5 (오류6시) 장소 :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프루트초장
바람이시내

“이것이 나의 참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8~10)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왜곡되게 인식되고 판단 받는가를 그 실제의 모습과 비교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대조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실상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에게 열심전도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욕을 듣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지 못하고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둘째는,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의인,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모두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비방하고 악하게 말해도 그것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셋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승천과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속이는 자로 여깁니다. 복음 진리를 허황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공교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진리입니다.

넷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명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실속 무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다섯째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의 주관적 체험에는 자신에게 죽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죽는 자 같으나 사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성도를 개개인의 경험도 이를 증명하여 줍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곤란을 당할 때는 징계를 받아 버림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여 신앙이 더 견고하여지고 순수하여집니다.

일곱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지 않고 멸망 길로 가는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볼 때 특히 시험에 들게 되지는 않을까 미움을 버리지 않을까 하여 근심하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의 이유들을 가집니다.

여덟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진 재물이나 학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데 있어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령에 공하를 느끼며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계시된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으로 그 심령들을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아홉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명예, 지위, 권세, 물질을 소유하더라도 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양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일용할 것을 주시니 모든 것을 가진 자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명예, 지위, 권세,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목대원 2016년도 하반기 계절학기



신구약 중간시대, 모세오경 등

목회대학원(원장 임종달 목사) 2016년도 하반기 계절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12월 5일(월) 오후 2시 총회 신학원 3층 강의실에서 드려져 겨울철 학구열에 불타는 목회대학원생들이 모여 교단 중진 목회자들로부터 집중적인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교단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목대원 교수 조선남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 목회대학원장 임종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중심으로 패역을 쫓는 무리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목대원생들을 축복했다.

이어 윤기석 목사의 광고, 임종달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 조선남 교수의 신구약 중간시대 연구를 시작으로 9월(까지) 김용덕 교수의 기독교와 문화 연구, 이용주 교수의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연구, 최병진 교수의 왕과 선지자의 관계 연구 등의 강의가 집중되었다.

한교연 정총, 대표회장에 정서영 목사 선출

2016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확정, 총회 선언문 발표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12월 8일(목)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38개 회원 교단과 10개 회원단체에서 파송한 총회대의원 250여 명과 교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정서영 목사·예장 합동개혁 총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2016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총회 선언문을 박수로 채택해 발표했다.

이날 회무처리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이동석 목사(예성 총회장)의 사회로 박용 목사(예장 개혁신 총회장)의 대표기도, 김일출 장로(현인이사)의 성경봉독, 박위근 목사(중경 대표회장)의 설교, 김요셉 목사(초대 대표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날 한교연은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가 한교연 회원교단을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교연은 “한교연 한기총 통합의 전제로 이단문제 해결과 두 기관 통합의 당사자는 한교연 한기총이며, 교단정회의는 협력대상”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대표회장이 한교연 파송 추진위원 4명과 함께 9인 추진위원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한교연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위임했다. 한교연은 이와 관련해 한교연의 의지와 임정을 공

분을 통해 회원교단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선언문은 “한국교회연합은 주님이 명하신 교회의 하나됨과 이타적 사랑, 사회 통합과 민족 통일을 위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민족의 선배들이 질곡의 역사 속에서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가까이 자기 몸을 불사랐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희생과 결단을 분부하신다”고 밝혔다.

대한성서공회, 제126회 정기이사회 개최

구세군 장만희 서기장관 이사보선 등 사장 업무보고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익현)는 지난 1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초 성서회관에서 제12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박종덕 이사 후임으로 구세군 대한본영 장만희 서기장관을 교단대표이사로 보선했다.

성서공회는 그밖에 교단대표로 권익현

주교(대한성공회), 김상현 목사(예장합동), 양병희 목사(예장백석), 찬성회원 대표로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문희수 목사, 이선균 목사, 김광년 장로를 선임했으며, 감사에는 송영훈 장로를 선임했다.

권익현 사장은 업무 및 사업보고를 통해

해외 성서 무료기증사업을 위한 모금실적이 지난해보다 5억여 원(21%)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한해 동안 116개 나라에 203개 언어로 지난해보다 2만5천168부가 증가한 총 609만6천885부의 성서를 해외에 보급했다고 발표했다.

권 사장은 이어 국내 성서 보급은 지난해보다 9만1천437부가 적은 47만7천117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으며, 이 가운데 개역개정판 성경전서는 37만4천448부가 보급되는 등 지급까지 총 888만8천288부가 보급됐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또 세계성서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성서공회연합회본부 지원과는 별도로 대한성서공회가 성경을 제작해 세계 미지림 성서공회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년에 공교 민주공화국에 7,036부를, 쿠바에 5,000부를, 우간다에 5,100부를 각각 보급했다고 전했다.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정기총회 열려

21회 사업 및 예산안 신년도 사업안 심의처리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지난 11월 29일(화)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2층 루아시기념관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갖고 21회기 각종 사업계획을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예장(합동예장)총회 총회장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예장(기도)총회 증경총회장 최옥석 목사의 기도, 예장(중앙개혁)총회 총회장 박길순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합동부흥)총회 총회장 김광현 목사의 삼하 12:1~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시대의 양심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광현 목사는 “본문에 나타난 나단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거나 자기의 기분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정권에 대하여도 아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고 말하고, “우리로 이 시대에 사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의 정직한 종



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기도시간을 갖고 정현 목사(예장기도총회 합동예장총회 총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미 목사(예장합동부흥총회 총무)가 ‘(사)한국기협 발전을 위하여’ 기도한 후 박형렬 목사(예장개혁신교총회 총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예장(기도)총회 김성환 목사의 기도 후 회무처

리에 들어가 질자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고 총무이사인 김영의 목사가 회원 정명하니 정족수가 20명으로 의장이 개회됨을 선포하였다. 이어 질자보고와 전 회의록을 채택하고 이사장 업무보고와 총무이사 사업보고, 감사보고와 서경숙 목사가 재무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신 안건 토의는 신년도사업안과 세입, 세출 안을 전년도와 같이 만장일치 통과시키고 모든 안건과 세미나 등은 이사회에 위임했다.

2016 기독교언론인의밤 축하예배·기독교언론 시상식

2016 한국기독교언론인의밤 축하예배 및 기독교언론 시상식이 거행되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기독교언론인들을 격려하고, 정론작필의 사명을 감당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는 기독교언론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2월 8일(목) 오후 5시 하림각에서 드려진 이날 예배는 한국기독교언론재단 상임대표 김진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동채단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독교언론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수상자와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한기총 증경회장 김지연 목사는 수 1:1-9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 것이 아니라 이집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당부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독교언론을 위해 민승 목사, 한정영 목사, 강준오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박진섭 목사의 광고, 신신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2부 시상식은 한은수 감독의 환영사, 지덕 목사의 찬사사, 이용규 목사의 심사평 및 인사말이 있었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투하는 기독교언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기독교언론목사회 대표회장 문세광 목사와 김동권 목사, 황수원 목사의 격려사, 정근모 장로와 이태희 목사의 축사, 이준영 목사의 재단 소개 후 박병득 목사와 전효실 방송인의 진행으로 2016 대한민국 기독교언론 대상 시상식을 갖고 대상에 기독교한국신문 발행인 유달상 장로를 선정하여 시상했으며 취재보도 유주형, 기독교언론발전 홍순만 부사장을 비롯해 기획취재, 영상보도, 사진보도, 지역언론, 이젠다, 전문기자 부분 등 각 8명의 기지를 선정하여 공로상을 수여했다.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 제27차 정기총회 성료

신신목 대표회장, “협의회 발전위해 헌신하겠다”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지난 11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여전도회관 2층 마리아홀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및 대표회장에 신신목 목사(한강중앙교회 원로)를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대표회장에 재선임된 신신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극구 사양했

지만 임원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다

시 맡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협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신신목 대표회장은 2017년도 주요사업으로 “회개운동 전개, 사랑의 한혈운동 전개, 알코올중독 및 마약퇴치운동 전개, 이슬람교 및 이단침투 적극 저지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공동회장



김진욱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동권 목사의 기도, 평신도총연합회 대표 이주태 장로의 성경봉독, 공동회장 최병두 목사의 삼상 3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무명씨의 충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계속해서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총체적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하여’ 공동회장 장인도 목사가, ‘침체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하여’ 공동회장 김해철 목사가, ‘협의회 발전과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상임부회장 김기원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고분 오원식 목사의 격려사,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이용규 목사의 축사 후 상임고분 서기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총회는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사회로 개회선언, 회순통과 후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의 보고를 비롯한 각종별 보고는 기해포된 유인물로 받기로 결정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한 밥사랑 나눔 예배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다문화위원회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정서영 목사)가 주관한 섬김의 행사가 지난 11월 30일(수) 오전 11시 서울역 부근에 소재한 (사)해돋는마을에서 열렸다.

이날 밥사랑나눔예배는 유영식 목사(공동회장)의 대표기도, 박광철 목사(공동회장)의 요삼 1:2 성경봉독에 이어 예담이합창단원이 특송을 하였고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의 요삼 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의 설교, 신진욱 집사의 봉헌 찬송, 김태성 목사(공동회장)의 봉헌기도, 원종문 목사(상임회장)의 격려사, 정서영 목사(다문화위원장)의 인사말,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세기종교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에서 고시영 대표회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신



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바른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주시는 그런 삶을 살자”고 말했다.

이어 원종문 상임회장은 “해돋는마을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도록 기도한다”고 격려했으며, 정서영 다문화위원장은 “오늘 해돋는마을에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

은 다문화가족들인데 자신들도 한국에 정착하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과 목거노인들을 섬기는 모습과 그 배려에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에는 노숙자들과 쪽방촌 어르신들이 자리를 함께해 참석자들과 함께 따뜻한 밥상공동체를 나누고 각각 양말 한 켤레씩 선물을 받아갔다.

필리핀 참전용사와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고대우주촌최고CEO원우회, 위로만찬도 베풀어

고대우주촌최고CEO원우회(회장 원종문 목사)는 지난 12월 1일(목) 오후 6시 필리핀 마닐라시 마닐라레이 스카이가든에서 필리핀 참전용사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만찬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6.25전쟁 때 참여한

필리핀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원우회장 원종문 목사는 “우리 원우회가 앞으로 글로벌 시대의 중심에 서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방황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원우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영진 이사장도 인사말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세계 중심에 우뚝 선 나라가 된 것은 66년 전 한국전쟁에 참여한 필리핀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늘 이 자리 한국인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고대우주촌최고CEO원우회가 졸업여행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한 것으로 원우회와 이사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행사가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체결에 앞서 드려진 행사는 원우회 회장 원종문 목사 사회로 원장 주명진 장로의 기도, 이사장 김영진 장로의 인사, 필리핀한국참전용사회 대표의 인사, 필리핀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신성호 안수집사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공공정책개발원, 국가개혁 공공정책포럼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 위해 노력하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정현일 박사)이 주최하고 한국공공실천포럼과 국회선교회가 주관한 “국가를 위한 기도회 및 국가개혁 공공정책 포럼”이 지난 11월 30일(수) 신촌 우리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김연태 목사(신촌 우리갤러리처처 대표) 사회로 개최된 포럼에서 정현일 원장(생명나눔교회 목사)은 국정 농단의 중심에 서있는 최순실과 최태민 일가의 종교혼합주의 미혹사건에 대한 ‘영세교 교주인 최태민의 사이

비종교 형태 보고(기독교대한성경교회 발표, 2016년 11월 24일) 자료를 토대로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특히 최순실과 지은레이 기획·추진한 문화장조용캠프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예산에 2,734억 원을 지원하려고 하였다. 이는 사실은 그동안 문화융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예산이 얼마나 사유화되었는지,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과정에서의 스포츠 분야 국정 농단도 심각한 문제점을 토론했었다. 특히 장 목사는 이러한 권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먼저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의 바른 기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 일본지방회 회원들 격려

선교국-일본지방회

교단 일본지방회는 지난 11월 28일(월) 오후 4시 사이타마 가와고에시에 소재한 히카리복음교회에서 정기회를 갖고 새 임원을 선출하는 한편 우상사신의 나라 일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교단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를 비롯해 1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일본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다.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상사신이 가득한 이질적인 문화와 열악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회원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며 힘든 상황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본지방회 회원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정기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새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로운 한 회기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했다. 일본지방회 신임원 명단
회장 염순복 목사, 부회장 박장만 목사, 총무 최남도 목사, 회계 이병영 전도사, 서기

김복순 전도사, 감사 김양희 목사

정기회를 마치고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가 대접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즐거운 교제시간을 갖고 준비된 숙소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고 사명의 교제를 나눈 뒤 다음날 각 지역으로 향했다.

필리핀선교사 가족세미나…사명감 재확인

선교국-필리핀지방회

교단 선교국(선교국장 서정복 목사)에서는 지난 11월 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1박 2일간 필리핀 리젠시호텔에서 필리핀선교사 가족세미나를 개최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무질서와 환락의 필리핀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필리핀지방회 1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를 비롯 오세준 목사, 조순남 목사, 이경진 목사, 임형순 목사 등 5명의 강사진이 세미나 강사로 필리핀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지극심을 불러



넣어주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는 수 1:2 말씀을 본문으로 '건너편으로 가

라'라는 주제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역설했고 선교사 가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다.

교회의 역할 명심하고 복음 전파할 것 다짐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양인 목사)는 지난 11월 24일(목) 오전 11시 순복음광암교회(담임



조원재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회무를 처리하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기도드렸다.

이날 월례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무 최정식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장영기 목사의

기도, 서기 배영례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회장 김양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경전 3:14-16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와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의 역할과 복음 선포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재무 조은주 목사가 헌금을 위해, 증경회장 김정식 목사가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경회장 김해배 목사가 총회와 지방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증경회장 조원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월례회에서는 회장 김양인 목사의 진행으로 총무보고와 회계보고를 받고 회무를 처리한 후, 교단에 복귀한 순복음혜교회 조길수 목사와 사모전진진 전도사가 지방회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어 순복음광암교회(담임 조원재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식 목사)는 지난 11월 29일(화) 한양대밀양교회(담임 신홍섭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드렸다.

이 날 예배는 총무 권점식 목사의 인도로 부회장 이동백 목사(대봉교회)의 기도, 증경

회장 황수길 목사(연양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황 목사는 시 101:1-8 말씀을 본문으로 '통치의 원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권세에는 그 부여된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통치의 원리는 집 안에서와 사회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권세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신성한 직분임을 알고 자신을 살펴 악을 미워하며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항상 겸손하여 비배하며 그의 사랑을 삶에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함께 한 목회자와 사모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어진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어 회계 윤득주 목사(순복음복음산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순복음관석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다과를 나누고 준비된 식사 후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시험과 단련 속 하나님의 섭리 깨닫길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임홍택 목사)는 지난 12월 12일(월) 오전 11시 가평순복음교회(담임 조남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서기 신근철 목사(순복음예수생명교회)의 찬양인도와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유석구 목사(에바다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가 있었고 지방회장 임홍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시 66:8-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뽕부한 곳에 들이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특별히 예정하셔서 송축 반기를 원하시고 또한 시험과 단련을 통해 우리를 뽕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려는 섭리가 계신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순형 목사(아침빛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외승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임홍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각종 회무 처리를 진

행하였다.

이후 가평순복음교회(담임 조남영 목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고, 웃음이다화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12월 8일(목) 오전 11시 울진 동해안순복음교회(담임 도명수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7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장동근 목사(순복음예정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정진학 목사(태전사람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김광동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재영 목사는 눅 24:36-43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 후 제자들을 말씀으로 세우신 예수님처럼,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



는 교회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하였으며, 설교 후 전 회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와 지방회 산하 교회들을 위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이어 재무 허만운 목사(성산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및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

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지방회연합 교회학교 동계수련회 개최 등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모임 후에는 함께 오찬을 들며 그동안의 안부와 답소를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후 각자의 지역으로 향하였다.

순복음복음산교회, 이웃 사랑 실천 앞장서는 교회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식 목사) 순복음복음산교회(담임 윤득주 목사)는 지난 12월



4일(주일) 오전 11시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개척 10년을 맞이한 순복음복음산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매년

정성을 모아 이웃을 섬기고 있다. 올해에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나월 21일 기도회'를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환우를 돕고 지역을 섬기기 위해 작은 정성을 모으고 약 300만 원의 모금액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이웃사랑 나눔 잔치는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로 열을 만에 깨어났지만, 혈전으로 뇌졸중으로 인해 말을 못하는 김경훈 목사님과 두 명의 이웃을 돕고 마을의 독거 어르신들과 작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치영 의원과 농소동의 김기향 동장, 농소동 저십자 성동 순고분 및 회원들이 참석해 깊은 마음을 나누었다. 순복음복음산교회 윤득주 담임목사는 "앞으로도 더 크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사랑나눔 잔치가 될 것을 믿는다"며 지역에 함께한 이들을 축복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감당 위해 기도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유홍열 목사)는 지난 12월 12일(월) 진부제일교회(담임 이성은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진장길 목사의 사회로 서기 정주영 목사의 기도, 진장길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유홍열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행 10:36-38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기도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 내신 것을 강조하며, 사역자들 역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기도하기를 당부했다.

이어 이성은 목사의 헌금기도와 유홍열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유홍열 목사의 인도로 회원 전명, 전회의록 낭독, 회계보고와 경과 보고를 받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진부제일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고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이강익 목사

· 대교광교회 담임
·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상임회장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천재지변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인젠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은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 있을때까지만 숨 쉬면서 가지고 가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생명으로 만들어졌고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 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므로 그 죄값으로 사망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로 영원히 살 생명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도 생명을 찾을 수가 없고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7~80년을 살다가 사라져 가는 목숨은 아무리 사랑해도 나눠 줄 수가 없고 나눠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단회적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수많은 사람이 경험하며 살다가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자기 목숨만 살다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 의 아들로 주어지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생명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세상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

(요일 5:10 -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요 3:16, 요일 5:12). 본문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미래에 주어질 생명(요일 2:15-17, 25, 3:2, 요 4:36, 6:27, 12:25)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현재의 생명력(요 5:24, 6:47, 54)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또 그리스도인에게 전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개개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현재 이 땅에서 이미 생명력

즉 영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알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 하여야 합니다(행 9:23-30, 고후 12:23-27).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분 외에는 천하 인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자가 없습니다(행 4:12).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피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갈 2:20).

그러므로 결국에는 소멸되고 부패해 버릴 육신의 양식에만 급급해 있는 우리들은 이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를 더욱 확실히 사랑하므로 영원한 생명체로 서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으로 영생하신 것처럼 자신의 영생하는

생명을 죄로 멸망하는 인간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인간의 몫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죽어야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에 인류의 죽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입니다.

사 53:5-6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찮은 물질이나 명예, 권세, 이해관계 때문에 내게 주신 거룩한 생명을 상처내서는 안됩니다. 만일 내던지고 배도하면 그 죄로 지옥행방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동 정

트럼프, 타임지 ‘올해의 인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로 뽑혔다. 타임지는 “좋은 나쁜든 올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트럼프”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2017년은 트럼프가 치러야 할 다음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회 대표회장 성권상 목사



한국기독교영광회는 제34대 대표회장 성권상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지난 9일(금)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드리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 한국사회 정화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성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조찬기도회 채익송 회장 취임



국가조찬기도회 제8대 이경숙 회장 이임과 제9대 채익송 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8일(목) 오전 11시 드려졌다. 회장 채익송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호란스러운 시국 가운데 기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하늘을 향해 새벽과 저녁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미래목회포럼 신임대표 박경배 목사



미래목회포럼은 9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3차 총회를 갖고, 신임 대표에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신임 이사장에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신임 사무총장에 박종언 목사를 선임했다. 박경배 대표는 “나라가 어려울 때 33인이 일어났듯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목회자 33인의 미래위원을 확보하여 연합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은 군대 내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인변호 31.52이 지난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2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27명이 공동 발의함)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군대 내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과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군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군 인권 보호관을 두는 것,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군 인권보호관은 군부대 조사방문 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이 종단을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 등 8개 조항에 달한다.

그러나 이 법안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은, 이 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다.

이 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보는 것 가운데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인권위는 동성애 문제를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보고 있으나, 올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헌법 최고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법을 기초로 한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은 우리 법률 체계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며, 동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된다.

둘째는 이 법은 동성애를 촉진시키는 법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 측은 이 법안은 오히려 동성애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제2조 제7항에 보면 현행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제30조 제1항의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규정한다’는 것에서, 동성애 논란이 있는 현행 인권위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라는 특수한 영역에 동성애를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셋째는 군대 내에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이 법의 주요한 것은, 인권위에 ‘군 인권 보호관’을 상임으로 둔다는 것이다. 또 군 인권 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인권위에 군 인권 본부를 두며, 인권 교육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도 협의하고, 개헌 대책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과 국회에 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결국 현행 인권위법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에 오히려 동성애를 뿌리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는 동성애자가 군 인권 보호관이 되기 쉽다.

이 법안에서는 군 인권 보호관을 선출

할 때, ‘인권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대 내 인권 문제에 대하여 활동한 사람과 단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되면 동성애 편향적인 관정이 될 것은 뻔하지 않은가?

따라서 이 법안은 군대 내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주장이나 취지와는 다르며, 군대 내에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동성애를 군대 안에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연관시키지 말고, 동성애 조항을 뺀 별개의 법률로 만들든지, 아니면 속히 철회하거나 폐기해야 마땅하다.

홈페이지: www.agpgs.or.kr

2017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소설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Master of Ministry)	4학기(2년)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양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출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자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2월 10일(금)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www.agpgs.or.kr)
- ③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 ~ 2017년 2월 17일(금)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원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국정화 역사교과서, 기독교 서술 보완

선교사 활동 서술, 타종교와 형평성 있게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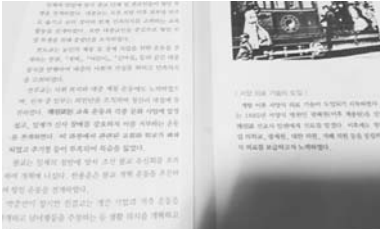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살펴 본 결과 기독교 관련 내용이 보완됐다. 특히 타종교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도 눈에 띈다. 다만 기독교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교회는 지난 2012년 4월 연합기관과 교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조직하여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했다.

그 가운데는 공공기관의 주일시험을 평일로 변경할 것, 역사교과서 기독교 서술을 형평성 있게 기술할 것 등 10대 현안을 제안했다. 그 가운데 9대 현안을 공약으로 받아들였다.

2013년 2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변호사), 정책위원장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서화운동본부) 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여성문화분과 모철민 간사(초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와 공약 실천에 대해 협의를 했다.

그리고 지난 해 9월에는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면담하고 교과서 기독교 서술문제를 타종교와 형평성 있게 기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한국 기독교는 정부 당국에 오랫동안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종교 편향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기존 역사 교과



서는 불교와 유교는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와 천도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개항 이후 등장한 기독교의 서술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게 서술되었다.

어떤 국정교과서의 경우에는 단 한 두 줄로 축소되어 있었다. 한국 기독교는 이같은 역사교과서의 서술은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와 민족운동에 미친 영향을 축소하는 동시에 특정 종교에 대한 심각한 편향적 서술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비록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는 새롭게 집필하는 역사교과서에 기독교가 어떻게 서술되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왔다.

이날 공개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는 한국교회에 주장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교육·의료 분야

에서의 선교사의 활동”이라는 항목을 설정해 기독교가 이 분야에 미친 공헌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조선이 서양 국가와 조약을 맺으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들이 “근대 문물 수용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서 알렌을 통해 광혜원(제중원)을 설립, 근대 의료를 도입했고, 아펜젤러를 통한 배재학당을 세워 근대식 교육을 했다는 사실을 기술했다. 이와 함께 한글 성경 보급과 음악, 체육 분야의 공헌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한국사에 일제 말의 기독교 신사 참배 반대운동을 설명하면서 “개신교는 교육 운동과 각종 문화사업에 앞장섰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이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교회와 학교가 폐쇄되었고 주지장 등이 투옥되어 목숨을 잃었다”(p.232, 〈종교계의 민족운동〉)고 기술해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의 항일운동을 분명하게 다뤘다.

국정화 교과서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리는 교육부 주관 역사교과서 설명회에 전용태 장로와 박명수 교수, 김철영 목사가 참석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 유적으로 가치 재조명

전라남도, “기독교선교 유적 세계 유산에 등재해야 한다”

전남 지역의 기독교 선교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기독교계에는 희소식이다. 지난 11월 24일 “전라남도 선교유적의 가치 재발견”이란 주제로 전남도청 대 회의실에서는 국제적인 학술회의가 열렸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모일 정도로 관심을 끈, 이번 국제학술회에서는 기독교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인도와 필리핀, 그리고 등재를 추진 중인 일본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문화재를 등재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또 이 자리에는 세계유산전문가와 근대문화유산 연구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기독교 선교유적의 가치를 집중 조망하는데 함께 하였으며, 이로써 큰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된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선교유적연구회 주관 아래, 근대교육, 의료기술, 서양건축 양식 등, 우리나라 근대화의 발전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한 개회기 선교사들의 업적이 재조명됨으로써, 전라남도에는 기독교 선교 유적이 문화유산으로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일부 타종교에서, 이 가치를 폄하했던 것



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지역의 기독교 선교 유적들이 문화유산으로서도 탄탄한 자리매김이 된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회의 진행은, 제1부에서는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와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전략”이라는 주제로 중앙문화재위원회 이상재 문화재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인도의 ‘교화와 수녀원’의 세계 유산 등재, 필리핀의 바로코 교회들의 문화재 등재, 그리고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의 숨겨진 기독교 유적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전라남도 기독교 선교 역사”

에 대하여 최혜영 교수(전남대)가 “여수의 선교 유적”에 대하여 박찬 교수(전남대)가 “미국 남장로회 순전선교부 선교마을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우성환·이석배 교수(순천대)가 그리고 “지리산선교사 유적의 근대문화·문화재적 가치”에 대하여 남호현 교수(순천대)가 “아시아의 기독교세계유산과 한국의 선교유적 비교연구”에 대하여 서민철 교수(영주대)가 각각 발표하였다.

제3부 종합토론에서는 천득염 교수(전남대)를 좌장으로, 김종진(전 문화재청 차장) 김효시(영남대) 이왕기(목원대) 조길환(순남대) 윤용혁(공주대) 전경미

여호수아 칼럼

문천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호수아교회 담임목사, 캐나다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M. A.), 한세대학교 목회학석사 졸업 (M. Div), 호서대학교 신학박사 졸업 Th. D),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대학원 과정중



백의종군(白衣從軍)의 예술가

(고전 4:2)

예술가들마다 자신의 마음 속에 두고 있는 영감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차르트의 음악적 고향은 비엔나(Wien)였습니다. 광기어린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음의 도시는 오베르 쉬르 아즈(Auvers-Sur-Oise)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예술인들이 예술적 고향으로 삼는 곳이 있는데 바로 ‘통영’입니다. 윤이상, 박경리, 유지진, 김춘수, 전용린 등의 위대한 예술인들과 한국의 고흐라 불리는 화가 이중섭의 예술적 토양도 통영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그의 대표작 ‘소’는 물론, 그의 유화작품들 대부분이 통영에서 그려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통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과 예술가들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영이라는 이름은 그리 예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릿발이 느껴지는 군사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통영은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의 준말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충청, 호남, 영남 세 지역의 해군을 관할하는 해군 사령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해군은 주변국가로부터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실상, ‘국가 방어 총사령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통영이 문화, 예술의 도시로 인식되는 것은 당시 전국의 핵심적인 고관들과 귀족들이 그곳으로 모였기에 자연스레 그 지역이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된 까닭입니다.

한때 이 삼도수군통제영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한국사 최고 영웅인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가 한산도에 머물

면서 삼도수군통제영을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산도의 28개의 마을 이름이 전부 이순신 장군 관련 이름들이고, 후에 삼도수군통제영이 위치하게 된 통영 지역에는 지금도 제승당, 총렬사, 세병관 등의 충무공을 기념하는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을 영웅적 존재로 만든 계기는 바로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한산대첩(韓山大海捷)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순신은 지형을 이용한 획기적 전략으로 거의 예술에 가까운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전, 선조는 충신인 이순신을 오히려 백의종군(白衣從軍)시킵니다. 그리고 후에 잊따른 전투의 패배로 나라가 절대적 위기에 부딪히자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때, 이순신에게 주어진 군함은 겨우 12척. 그럼에도 이순신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12척으로 진도의 울돌목에서 왜군의 배 30여척을 무찌릅니다. 그것이 명량대첩(鳴梁大海捷)입니다. 그 결과, 호남의 국장을 쳐서 군량미를 확보하려고 한 풍신수길 군대의 길은 막히버렸고, 왜군들은 한 마디로 굶어 죽게 됩니다. 오향과 질투로 이순신을 내쳤었던 선조는 이순신의 사후에 이 같은 시를 썼습니다. “만리장성 무너지니 누구를 의지할꼬. 나라여 복도 없다. 하늘만 아득하네.”

전장의 예술가 이순신의 위대함은 그가 보여준 그림 같은 지략, 혹은 23년 28세의 놀라운 전승전력보다는 백의종군 후에도 국가와 백성들에게 바친 ‘흔들림 없는 충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전부를 녹여서 전장에 수놓았던 이순신! 그는 진정한 화가였고, 그의 도시 통영 또한 예술의 도시가 맞습니다.

(예원예술대) 정성창(전남대) 이동주(한국전통문화대 겸임)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함께, 전라남도에는 기독교 선교 유적을 세계 유산에 등재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민철 회장(사단법인 한국선교유적연구회)의 개회사와 이낙연 지사(전남 지사)의 환영사와 선교사 후손이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인 인요한 박사가 축사를 하였다.

이날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인데, 이곳은 지난 2007년 8월 3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철거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1972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논리를 들어, 지금까지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된 지역 기독교와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2007년 12월 3일 전남도로부터 사단법인 <지리산기독교 선교유적지보존연합>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현재 유적지 보존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은 2009년 11월 (사)도교모모코리아(근대건축보존회)와 조사연구 용역을 체결하여, 지리산 일대의 기독교선교사 유적 고증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2011년에는 국제적인 시민단체 내셔널 트러스트 주최,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참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15년 6월 시민단체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주최로, 전남 구례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지리산왕시루봉유적지> 전문가 간담회에서, 서울대학교의 윤여창 교수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는 여러 측면에서, 문화재적, 역사적, 건축학적, 선교학적 가치를 품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한글 띄어쓰기 맞춤법 등 선교사들에 의해 한글 문법이 최초 탄생한 장소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유산으로 충분하다고 역사학자이며, 전 군사편찬 위원장 이만열 교수는 밝힌 바 있다.

지리산 왕시루봉의 선교사 유적지는 총 12채의 건축물이 있는데, 노르웨이, 미국, 호주, 영국 등 각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의 각자 고향 건축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것은 개회기 현대사의 소중한 문화인류학적인 근대유산으로 손색이 없어, 속히 문화재로 등재되어 보호를 받아야 한다.

홈페이지 참조-www.jmskr

홈페이지: www. 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영환관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2016년 12월 5일(월)~2017년 2월 10일(금)
- ②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③ 면접시험 :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1시
- ④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서울서부지방회



회장 이광석 목사
순복음송리교회



총무 신동민 목사
시온영광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성규 목사
성물교회



총무 강인규 목사
영복한우리교회



서기 정창밀 목사
하늘부흥교회



회계 정해관 목사
은천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이복순 목사
진리와사랑교회



총무 김홍집 목사
건강교회



저무 신은순 목사
반석교회

서울남동지방회



회장 김종열 목사
참사랑교회



부회장 정윤기 목사
순복음기린교회



총무 우성준 목사
은혜교회



저무 회계 김건도 목사
우리사랑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덕연 목사
진리교회



총무 이기강 목사
새소망교회



서기 강경욱 목사
새생성순복음교회



회계 방은혜 목사
임마누엘교회

경기지방회



회장 정강관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부회장 최은규 목사
순복음선한목자교회



총무 김병호 목사
순복음성복교회

경기남부지방회



서기 전혜세 목사
열린종교교회



저무 임현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회계 김배을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경기중앙지방회



회장 임홍택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부회장 유석구 목사
에버다순복음교회



총무 유두환 목사
호평순복음교회



서기 신근철 목사
순복음예수성교회



저무 이봉기 목사
보리울순복음교회



회계 김순형 목사
이침빛교회

경기남부지방회



회장 김기민 목사
별빛순복음교회



부회장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총무 박홍열 목사
오성사랑교회



서기 김효신 목사
순복음찬양교회

안산시흥지방회



저무 최정열 목사
순복음민영교회



회계 정미자 목사
샘교회

경기동부지방회



회장 김동민 목사
동산영광교회



총무 최현순 목사
영광교회



저무 회계 박수진 목사
사랑의능력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이석훈 목사
대구는혜와진리교회



부회장 최우현 목사
안산은혜와진리교회



총무 이도희 목사
진원은혜와진리교회



서기 김윤희 목사
안산은혜와진리교회



저무 이장환 목사
인천은혜와진리교회



회계 윤정권 목사
일산은혜와진리교회

안산시흥지방회



회장 김정열 목사
순복음영성교회



부회장 오선분 목사
순복음성원교회



총무 김영만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경기북부지방회



서기 최영희 목사
예수교회



저무 회계 오정순 목사
주성교회

경기북부지방회



회장 김장수 목사
예수교회



부회장 박정신 목사
은선교회



총무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서기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종교교회

용인지방회



회장 강희태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부회장 김인희 목사
순복음성경교회



총무 지용희 목사
새생성교회

일산지방회



저무 김동일 목사
기도하는교회



회장 박순희 목사
순복음양이문교회



부회장 이재덕 목사
순복음남서교회



총무·저무 조영만 목사
일산별빛교회



서기 회계 양호철 목사
빛과성경교회

김포지방회



회장 정청호 목사
마음순복음교회



부회장 이재덕 목사
서암순복음교회



총무 이근수 목사
우리순복음교회



서기 주지현 목사
주천교회



회계 최종남 목사
김포순복음초대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홍영광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부회장 이창모 목사
인천국제순복음교회



총무 송준호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서기 조성진 목사
순복음종민교회



저무 김자영 목사
새소망순복음교회



회계 이하숙 목사
사랑순복음교회

강원중앙지방회



회장 우종열 목사
열린교회



부회장 진장길 목사
성지순복음교회



총무·서기 최정희 목사
성리교회



회계 이성은 목사
진부제일교회

강원서지방회



회장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부회장 정희자 목사
비둘기교회



총무 위관석 목사
순복음꿈꾸는교회



서기 회계 김중배 목사
군업순복음교회

대전지방회



회장 엄기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회장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총무 이미순 목사
한소영교회



서기 석인민 목사
하늘사랑교회

충청서지방회



회장 차홍식 목사
아산순복음교회



부회장 안홍규 목사
한사랑교회



총무 김영권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저무 오수경 목사
순복음장자교회



회계 이인복 목사
송죽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소영진 목사
신부순복음교회



부회장 안종식 목사
공주제일교회



총무 노우석 목사
평안교회



서기 윤용 목사
성산순복음교회



저무 회계 오정목 목사
신일복음교회



회장 노부철 목사
산성순복음교회



부회장 정의섭 목사
한소영교회

충주지방회



총무 김상훈 목사
청주성주교회



회장 윤병하 목사
한우리교회



총무·저무 박기선 목사
광혜진관성교회



서기 진현백 목사
성국순복음교회



회계 이범구 목사
순복음새생성교회

충북지방회



회장 최동순 목사
삼산순복음교회



부회장 오병희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총무 김 용 목사
새희망교회



서기 김경준 목사
후영순복음교회



저무 신병설 목사
청주주사랑교회



회계 민병훈 목사
예광교회

경남지방회



회장 황용환 목사
은혜와평화교회



부회장 류지석 목사
순복음서경교회



총무 권규성 목사
회복교회



서기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저무 류성진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회계 신동철 목사
김해순복음제자교회

경남남부지방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서기 박영욱 목사
순복음침례교회



저무 정영진 목사
감리교회



회계 김태주 목사
부산우리교회

관주지방회



회장 김영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부회장 장영기 목사
순복음영원교회



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서기 배영애 목사
순복음열린교회



저무·회계 조은주 목사
순복음침례교회

전북지방회



회장 최병진 목사
익산은혜와리교회



부회장 유관영 목사
순복음은나루교회



총무 김상운 목사
성광순복음교회



서기·저무 최강욱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회계 김화수 목사
은혜사랑순복음교회

전북서지방회



회장 김중곤 목사
주바리교회



부회장 박상규 목사
정음순복음중앙교회



부회장 양경석 목사
은혜성산교회



총무 양화철 목사
창복순복음교회



서기 김훈배 목사
꿈이있는교회



저무·회계 심혜원 목사
임마누엘중앙교회

전라지방회



회장 김영식 목사
순복음장성교회



부회장 최남성 목사
동간순복음교회



총무 정찬식 목사
고흥순복음교회



저무·회계 서은자 목사
순복음은총교회

호남지방회



회장 김장구 목사
열린순복음교회



부회장 김성호 목사
순복음성림교회



총무 서배드로 목사
목포시내교회



서기 민승복 목사
무안순복음은누리교회

제주지방회



회장 김건수 목사
순복음예수교회



총무 이재홍 목사
순복음남남교회

총회 지속지방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 11)

전국여교역자국 2016 송년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 위해 죽도록 충성하자!



국장 박정신 목사

전국여교역자국(국장 박정신 목사)에서는 지난 12월 12일(월) 오전 11시 일산온선교회(담임 박정신 목사)에서 2016년 송년모임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장요셉 목사와 김순종 목사의 찬양인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교역자국 홍보부장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차장 김효신 목사의 대표기도, 온선교회 박찬샘 청년의 찬양, 여교역자국 고문 정부용 목사(대림벤엘교회 담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골 3:17 빌 2:10-11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함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꾀계를 물리치고 어려운 모든 환경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것'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또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오직 한길로 나아가는 진실된 고딕에 속해 있음을 감사드리고 더욱 진실한 주의 종이 될 것과 지도자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된 지도자, 성경적 지도자, 성경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설교에 이어 회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 및 민족복음화를 위해', '종교와 신학교회를 위해', '여교역자국과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 신동숙 목사(서문), 김순자 목사(경조부장), 김바울 목사(예배부장), 조은주 목사(선교부장)의 주제별

기도인도로 한 마음되어 뜨겁게 기도했다.

이어 행사부장 최영희 목사의 한금기도, 전국지부장들의 한금찬양, 여교역자국 박정신 목사는 광고를 통해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고문 정부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회원들은 예배 후 온선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오후 2시부터는 조영란 목사의 인도로 한미로 되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지방회별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기자랑에는 경기남, 충남, 경기, 서울중부, 중앙, 일산, 광주, 전주, 강원, 청주, 안산시흥, 부산지방회 회원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특히 부산지방회 회원들은 한국교회 앞에 다가온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 마귀와의 전쟁 등 단호히 물리쳐야 할 현 상황을 표집는 상황극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큰 호응을 받아 심사위원으로부터 1등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한 해 동안 배푸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것은 돌아보아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 앞장서 새로운 한해를 맞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다짐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해를 열어가기 위해 헌신을 되어 기도했다. 이어 사회부장 김중애 목사의 폐회 기도도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각 목양지로 향했다.



정부용 목사, 신동숙 목사, 김효신 목사, 김순자 목사, 김바울 목사, 조은주 목사, 김중애 목사, 최영희 목사, 한순남 목사, 조영란 목사



▲심사위원 정부용 목사, 신동숙 목사, 박정신 목사(왼쪽으로부터)



지방회별 장기자랑

장기자랑

장기자랑

장기자랑

장기자랑

장기자랑

장기자랑

강원지역 한국교회 구국기도회 영월에서

70~80대 노(老) 목회자들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죄부터 회개

강원지역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구국기도회가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소속 원로목사 40여 명과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총재 정근모 장로)의 주관으로 열린 이 날 기도회는 시종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진행됐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 주최와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총재 정근모 장로)의 주관으로 열린 이 날 기도회는 시종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진행됐다.

구국기도회는 1차로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지형 전망대 앞에 모여 부름을 받고 '주여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라고 소리치며 통회와 자복의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어 영월 한반도교회에 모여 2차 구국기도회가 이어졌다. 한반도교회에서는 영월지역 기독교인들과 함께 모여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는 준비위원장 김진옥 목사(평생목회 대표회장)의 사회로 분세광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의 인사말, 이상모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명예회장)의 선언문 낭독, 김진옥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공동회장)의 대표기도와 운영위원장 신연옥 대표의 성경봉독에 이어 '수건을 벗은 얼굴(고후 3:18)'이란 제목으로 한은수 감독(예수교대한감리회 웨슬레총회)이 설교를 전했다.

이어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도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공동회장)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분장식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공동회장) '위정자를 위하여', 이상형 시판(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이사) '한국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고, 배원복 목사(한반도교회 담임목사)의 환영 인사, 조석



규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사무총장)의 광고, 김재용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공동회장)의 축도로 구국기도회가 마무리됐다.

70~80대 노(老) 목회자들은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죄부터 회개했다. 기독교 단체의 분열과 교회 내 다름에 대한 자성(自省)이었다.

한은수 감독은 설교를 통해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어 합합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며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다시금 축복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라고 설교했다.

준비위원장 김진옥 목사(평생목회 대표회장)는 "작금의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며 느끼는 불안감 만큼이나 지도자들의 도덕성 하락, 부정부패, 분열과 분쟁으로 심각한 진통을 겪으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며 "이제 서로를 조금 더 용서하고 양보하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양상의 비극이 한국사회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뜻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위원장 이주태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우리나라가 위기를 벗어나려면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는 목회자들이 필요하다."며 "원로목사님들의 기도가 한국사회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부산, 경남, 대구 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상모 목사는 선언문을 통해 '이 나라가 종전통화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정이 흔들리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작태가,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또 "굶은 배움을 입고 통회자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원로 목회자들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다"고 말했다.

은퇴목회자와 해외결연아동에 성탄선물

CTS인터내셔널, CTS기독교TV가 2010년 설립한 비영리단체

CTS International(이사장 감경철, 이하 CTSI)은 연말 성탄절을 앞두고, CTS목자교회(담임목사 임재환) 소속 은퇴목회자 260여 명에게 아로니아 분말 160개와 탁상용 달력을, 160개국 690여 명의 해외 결연 아동들에게는 이불과 옷, 학용품 등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CTS는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 지난 2008년 은퇴목회자를 위한 교회 'CTS목자교회'를 설립하고, 70~90대 은퇴 목사·사모 2백여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섬기고 있다. CTSI 감경철 이사장은 "은퇴목회자들의 헌신에 깊

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CTSI는 교계의 원로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단법인 CTSI는 CTS기독교TV가 2010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행복한 섬김과 따뜻한 나눔을 바탕으로 제3세계의 빈곤과 굶주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국내 농어촌 마지림 교회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후원문의 02)6333-0070 (www.ctsi.or.kr)



기아대책-CBS, '더미션4' 방영

선교후원 프로젝트 2013년부터 ... 선교사 사역 감동의 스토리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CBS와 함께 하는 선교사 후원 프로젝트 '더미션4' 김바울 기대봉사단 편을 10일(토) 방영했다.

김바울 기대봉사단은 1999년 인도로 파송 받아 17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선교를 준비하던 중 안으로 시한부 선교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도로 왔다. 현재 김바울 기대봉사단이 사역을 하는 곳은 불가촉천민이 사는 무슬림 마을이다. 그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본다.

쓰레기를 주워서라도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이곳의 아이들에게 영양 공급을 위한 식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 학교에 가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다. 김바울 기대봉사단은 기아대책과 함께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돕는 문맹 퇴치 사업과 영양공급을 위한 식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4년째 진행되는 '더미션' 프로젝트는 기아대책 파송 전문인 선교사(기대봉사단)들의 삶과 사역을 조명하고 성도들의 관심과 후원을 요청하는 목적으로 기획했다. 김바울 기대봉사단 편은 10일 오전 9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12일 오전 10시 50분, 14일 오후 8시 10분, 15일 오후 2시 30분 방영했다.



한교연, 다문화가족 초청 사랑나눔 안보견학

8개국 250여 명 참가, 휴전선일대서 평화 기원 기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이 지난 11월 24일 다문화가족 초청 250여 명을 초청해 강원도 철원 일대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 등 안내시설을 견학하고 안보 위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교연은 국가적인 정치 혼란 속에서 안보 위기에 처한 무감각해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족 250여 명에게 휴전선의 남북 대치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안보견학에는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안산글로벌 다문화센터, 웨스트민스터대학원대학교 글로벌 학부와 한국어학당, 한동교회 다문화사역부 등 다문화가족들이 참가했으며 국적은 중국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이다.

다문화가족들은 철원 고성정 철의삼각지안보관에서 김훈 장로(기획홍보실장)의 사회로 김효종 목사(호헌 직전총회장)의 기도,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말씀, 최귀수 목사(선교교육국장)의 안보견학 안내

순으로 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분단 한국의 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각지에서 오신 다문화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하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동쪽끼리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종칼을 겨누고 있다"며 "이 땅의 안보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참가한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겨울용 극세사 이불과 김 선물세트 등을 선물했으며, 고성정에서 갈비탕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다문화가족들은 고성정을 출발해 제2땅굴과 철원 평화전망대, 월정리 역사, 두루미관, 북한노동당사, 백마고지 전적지를 견학했다.

한교연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보 견학에 진지한 자세로 참가한 다문화가족들의 비움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는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탈북민 가족들도 초청해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 는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제9회 한국기독교문화예술대상 시상식

오는 12월 27일 오후5시 그랜드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려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이사장 이상열 목사, 상임 회장 한인수 장로)이 주최하는 제9회 한국기독교문화예술대상시상식(대회장 홍정선 목사)이 오는 12월 27일 (화) 오후 5시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벨레메모리얼파크(이사장 홍정선)와 도모디자인그룹(대표 김광호) 후원으로 성대히 개최된다.

한국기독교문화예술대상대회는 기독교문화예술 중흥에 기여하는 기독교문화예술인들을 선정해 그들을 격려하고 한국기독교문화에 활력을 일으키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대회에는 그동안 문화예술선교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문학·음악 등 7개 부문에 수상자가 선정되어 이날 대상을 받는다.

■ 먼저 문학부문의 원웅순 장로는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시인이자 교수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물론 후진양성을 통해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원 장로는 또 크리스천문학자협회 회장도 역임하면서 기독교문화선교에 힘써왔으며 이번 수상을 받게 된 경위로 그의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어 받게 된 것이다.

■ 연극부분 김석훈 씨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동대학 예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립극장 단원(1998-2000년)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준 스타보다 명배우가 어울리는 신망심이 강한 연기자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홍길동, 토마토특공대 등의 드라마와 위대한 유산, 밤으로의 긴 여로 등 연극작품이 있으며 지난 12월 15일 성남 아트센터에서 마티네콘서트를 갖기도 했다.

■ 방송부문의 전해진 씨는 한양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미스코리아 출신의 신망심이 부쩍한 탤런트로 데뷔부터 지금까지 활발한 연기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녀의 작품으로는 노란 손수건, 큰언니, 아름다운 유혹 등이 있으며 매 작품마다 개성 있는 연기를 펼쳐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유명한 록밴드 백두산의 기타리스트 김도균이 그녀의 사촌오빠이다

■ 문화선교부문의 최일도牧사는 다일공동체의 대표로서 합빛고 굿주린 이웃을 위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온 목사이자 사회사업가이다.

그는 이 같은 사랑실천 외에도 ‘밤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마음 열기’, ‘행복하소서’, ‘발심’ 등 많은 저작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로 후진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 문화경영 부문의 김용식 씨는 공주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한 경영인으로서 한국 최초의 텍사미터기를 개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바우처소프트 회장으로 성공적인 사업운영은 물론 한국우물기독교협회(이사장)을 통해 전국 교도소를 순회하며 문화예술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선교 뮤지컬 ‘갈릴리로 가요’를 제작하기도 했으며, 현재 배령공화국 명예수석부영사로 한국을 빛내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 연극연출부문의 이민옥 감독은 서울예술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다. MBC 및 EBS 방송 진행자로 임분하여 ‘바닷가 소년’, 작품을 시작으로 어린이·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사회구원을 위한 공익작품을 제작해 무대에 올랐다.

극본 집필은 물론 연출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는 기독교 작품연출을 통해 선교에도 앞장서왔으며 지난 5월에 공연된 그의 대본·연출작 ‘갈릴리로 가요’는 전회공연이 매진사례를 이룬 바 있다.

■ 음악부문의 최영섭 작곡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따라 부르는 우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한 세계적 반열의 대 작곡가이다. 모태신앙의 소유자인 최영섭 작곡가는 아름다운 선율의 수많은 가곡작곡은 물론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가곡도 작곡해 한국음악계와 기독교 문화예술발전에 지대한 공을 끼쳐왔다.

대표곡 ‘그리운 금강산’도 창조주의 위대한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인천연합장로교단 2016 정기총회

인기총 파송임원 구성 및 교단발전책 모색

인천연합장로교단 2016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2일 오전 11시 인천시 송월동 소재 송월교회(박삼열 목사)에서 열려 연합장로교단의 활성화와 발전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기총회 1부예배는 서기 강세창 목사의 사회로 장원기 목사의 기도, 정일량 목사의 엠 4:5-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바울을 만든 의식’이라는 제목의 설교 사무총장 성경모 목사의 인사 및 광고, 김태경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회의는 의장 박삼열 목사의 사회로 회원점명과 교회선언, 회순통과, 전 회의록 보고 후 일부 정관을 심의 통과시켰다. 총회는 계속해 안건토의시간을 갖고 인천기독교총연



합회 파송 임원을 구성하는 한편 인천연합장로교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발전책을 논의했다.

한국교회 영적성장을 위한 세미나…오직 말씀으로

문제선 목사·김형주 목사 등 강의 펼쳐

제4회 한국교회영적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예영수 박사와 김형주 목사의 강의에 이어 오후에는 문제선 목사가 강사로 나서 요한계시

록 1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완전계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했다.

문 목사는 계 1:1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여 지시한 것’이라에서 “계시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에게 지시하신 것으로 마귀의 참소나 사람의 견해나, 지식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이요 비밀”이라고 말했다.

문 목사는 특히 “반드시 될 일은 환난과 재림, 심판과 천년왕국, 무궁천국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 성경은 계 1:1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 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종과 교회를 살리실 뜻과 섭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타내주신다”고 결론지었다.

제5회 한국교회영적성장을 위한 세미나는 오는 12월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지구촌 어린이들 위한 ‘해피앤딩’ 캠페인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회장 양호승)이 내년 1월 31일까지 배우 최강희 월드비전 홍보대사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들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해피앤딩(Happy ANDing)’ 캠페인을 진행한다.

‘월드비전 해피앤딩’은 ‘끝(Ending)이 아닌 함께(AND)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이번 캠페인은

‘오늘 어린이의 온리원 후원자가 되어주세요’라는 주제로 세상 모든 어린이에게 불행한 끝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해외아동후원 캠페인이다. 특별히 이번 캠페인은 지난 10월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최강희가 함께한다. 그녀는 우간다에서 만난 아이에게 희망을 전했을 때, 그 반짝이던 눈빛을 보았던 감격과 기쁨을 직접 노래로 불렀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오직 복음을 위한 기도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2016년 10월, 지인과 함께 만난 박 목사는 반갑게 우리 부부를 맞아 주며 전도과정을 알려주었다. 이때까지는 전도의 위력을 몰랐다.

함께 전도를 나가기로 약속한 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안성에서 남양주를 향해 달려갔다. 먼저 동영상 교육을 받은 후 현장전도를 나섰다.

“교회 나가세요” “반갑습니다. 약속 한 번 하시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박영수 목사는 틈을 주지 않고 영접기도까지 시키고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 이름까지도 답변을 얻어냈다. 심지어 달리던 차가 신호를 받고 서 있으면 차 문을 두드려 전도했다.

충격 그 자체였다. 이런 전도가 있었나?

내 머릿 속에는 지난날 했던 전도가 떠올랐다. 물품을 가지고도 해봤지만, 그 자리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전도 받는 사람의 입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나오는 일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걸 주시!

기도하는 박 목사 옆에 바짝 서서 무슨 기도와 말씀을 하는지 몰랐다. 각 사람에게 기도 외에 주시는 말씀이 다 달랐다.

오직 복음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소 이름 전화번호까지도 다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다.

12월 8-9일, 개척한 지 1년 된 안성 함께하는교회에서 가족세트 전도가 열렸다. 아직 성도는 없고 목사님과 사모인 내가 둘이 예배를 드렸다.

박영수 목사는 저녁예배를 인도하며 “40년을 설교했지만, 성도 없이 하기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목사의 간증과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우리는 새벽예배 후 전도를 나섰다. 이 새벽에 누가 기도를 만나 했지만, 버스 정류장 앞에서 중년의 남성에게 다가가서 약속과 동시에 영접 기도를 하고 전화번호 주소 이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차거운 바람이 부는 새벽, 50여 분 동안 무려 7명을 만나 전도했다. 우리는 다섯 교회와 하나가 되어 매우 금요일 전도를 한다. 그 다섯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들이 함께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능력전도 현장을 보고 각자 교회에서 가족세트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번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전도의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편이신 지성명령을 수행하며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안성 / 함께하는교회 / 최상자 사모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입년 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 및 연수교육세미나



부흥사회 회장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11월 28일(월)~29일(화) 1박2일 동안 경기도 가평군북음교회(담임 조남영 목사·교단 총회장)에서 가을산행기도회 및 부흥사 연수교육세미나를 실시했다.

산행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는 고전 1:27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역설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덧입은 부흥사들은 춘천 봉화산 국곡폭포에 올라 ①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②정책위원장과 정책위원들과 교단의 발전을 위하여 ③총회장과 총회임원 및 교단교회들을 위하여 ④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⑤교단 부흥사회의 활성화와 부흥사들의 자질향상 및 역동적인 사역을 위하여 ⑥WCC와 종교다원주의자들과 동성애인법추진 저지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하산 후 가평군북음교회에서 열린 부흥사 연수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정부용 목사(대림별영교회)는 마 15:21~28 말씀을 왕하 2:1~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특강을 통해 “먼저 영혼이 절제기를 소원하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교회 경제부흥 세미나에서 최정식 목사(순복음북원교회)는 잠 10:22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철저히 순종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소유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포했다.

다음날 오전 예배에서 부흥사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는 눅 24:36~46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직접 보여

강사진

조남영 목사
교단 총회장정부용 목사
교단 전 부흥회장최정식 목사
광주지방회 총무

주고 믿어보고 함께 식사를 해도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을 풀어주시니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중심 성경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후에는 인근 남이섬을 탐방하며 부흥사들 간의 은혜로운 교제와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부흥사회 행사를 위해 가평군북음교회(담임 조남영 목사)에서는 식사와 다과 및 교회수양관의 숙소를 제공하며 정성껏 섬겨주었고 경기중앙지방회에서도 식사를 대접하며 부흥사회가 이 시대에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도록 격려해주었다.

이번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 및 연수교육세미나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혼란과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중추적인 시기에 먼저 부흥사들이 깨어서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나라의 영적 환경을 안정시키고 각 교회에서 맡겨준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단의 확실한 영적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 주고 또한 가장 성경적인 교단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해 주어 혼탁한 시대에 바른길을 제시해 주는 영적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사명감과 열정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신앙과 축구를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 전달

스포츠선교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축구선교회

대한민국축구선교회(대표 박애늑 목사)는 지난 12월 6일(화) 광명중학교(교장 박두안)에서 2016 프로축구선수초청 축구재능기부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축구선교회는 2001년 4월 박애늑 목사와 이영표, 김동진, 최태호 선수 등이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서 시작되어 지난 2012년, 대한민국축구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후 매년 시행되는 재능기부 행사를 통해 열악한 축구부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축구 꿈나무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 박애늑 목사는 “신앙과 축구를 통해 어떻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선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재능기부가 좋겠다는 판단을 내려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올 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강상우(우원스텔러스), 강수일(전 국가대표), 김동석(인천FC), 김성수(교양FC), 김원식(서울FC), 김영근(대전시티즌 스카우터 및 코치), 문기환(부천FC), 양민혁(김신욱축구교실 코치), 여민지(대전 스포츠토토), 오반석(제주 유나이티드), 주재덕(도브 스포츠아카데미 코치), 허준호

(전북현대), 최동현(DH에이전트 스카우터)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꽃은 K리그 선수들과 광명중 선수들의 만남이었다. 프로 선수들은 광명중 선수들을 대상으로 코스별 훈련을 통해 ‘원 포인트 레슨’을 했다.

1시간 동안의 훈련 뒤에는 프로선수 대 광명중 선수들의 대결이 이어졌다. 장난기 없이 진지하게 진행된 경기는 결국 프로선수팀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경기를 마친 후 오반석 선수 “몇몇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었다. 생각보다 잘해서 놀랐다”며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나 역시 즐거웠다”고 말했다.

광명중 이주영(15) 선수는 “TV로 보던 형들과 경기를 해 영광이었다. 나도 프로가 되는 게 꿈인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경기를 마친 후에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 박애늑 목사

김순우 목사
(예하성 스포츠선교위원장)

대한민국축구선교회 김순우 목사(예하성 스포츠선교위원장)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운영되는 우리나라 학원 축구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비울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이 되고자 한다”며 “재능기부행사를 계기로 후원회조직 및 후원회운영 인프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초대시

정문석 시인

언제 아담은 울었는가



언제 아담은 울었는가
에덴에 핀 꽃을 처음 보았을 때인가
최초로 이브의 살을 만져 본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던 날이었을까

아닐 것이다.
태양이 노을이 되고 노을이 어둠이 되는
처음 맞는 밤에도 공포에 떨었을 뿐
아담은 울지 않았다.

아담은 울지 않았다.
다만 아담이 운 것은
정확하게 천지창조 칠 일째 되는 날
아침 해가 어둠 속에서 불쑥 솟아오를 때
아담은 그때 목 놓아 울었으리라.

오랜 장마 끝
맑게 개인 날
이불을 널어 말리듯
태양으로 고개 돌려
심호흡을 할 때
나는 더 이상 가난을
미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지창조의 일곱 번째 날
아침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손뼉을 치듯 너무 기뻐서
최초의 남자 아담처럼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정문석 시인 프로필

· 1988년 전남 강진 출생
· 강진농고, 서리벌 예대 문예창작과 수학
· YMCA 주최 고등부 백일장 석류 시장원
· 고등학교 시절 시집 '요람' 발간
· 시집 '사랑하는 사람들' 발간

· 월간 '한국시'에서 무지개 농장 외 2편 당선
· 대한교과서(주) 위원
· 도서출판 한양 대표
· 가평순복음교회 집사

‘2016 대한민국 성탄축제’ 성탄트리 점등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희망의 빛, 따뜻한 사랑의 빛 선물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와 대한예수교장로회(대한총회 총회장 이종승 목사)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6시에 서울광장에서 시민 10,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개최하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형 성탄트리의 불을 밝혔다.

매년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밝게 비추는 2016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CTS를 통해 27일 오후 6시부터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2016 대한민국 성탄축제에는 양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중경대표회장)가 성탄메시지를 전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하임호선 주한 이스라엘대사 등 정관계 인사와 CTS공동대표이사 채영남 목사, CTS 이민우 부회장, CTS 김관상 사장, 예장대신 장종현 직전총회장, 예장대신 이종승 총회장, 조일래 한국교회연



합 대표회장, 백남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회장 등 교계 인사 그리고 장혜진 리우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모범택시운전자, 새터민, 다문화 가정, 군인,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대표 등이 점등인사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병희목사는 ‘메리 크리스마스’(눅2:9-14)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더욱 따뜻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마음의 평화·가정의·나라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히 양목사는 국정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백만 촛불의 소리는 양심의 소리이며, 반드시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면서 “여아의 정치는 촛불 민심에 편승하기보다는 국민 마음 속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축하무대는 예장대신 소속 10개 교회에서 100명씩 참가한 1,000명의 연합성가대와 새중앙교회 어린이합창단이 서울광장에 모인 3,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기쁜 성탄을 축하하는 합창 무대를 가졌다.

점등에 나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의 혼란이 잘 수습되고, 국가의 위기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가 다가오기를 바라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CTS 이민우 부회장은 “이번 대한민국 성탄축제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통해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길 바라며,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빛이 치유와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사설

만왕의 왕이시여, 통치하옵소서!

나라의 혼란이 이 해가 다기도 바로 잡히지 못할 듯하다. 국회가 12.9. 박근혜 대통령 권한을 중지시키는 탄핵의결을 결행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난맥상으로 인한, 한 달 이상 나라를 어지럽히던 일대 소란 사태도 당연히 종식되어야 했다.

그러나 야8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자, 이번에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또다시 공격하고 있다. 조기 대통령선거가 그들의 정권 장악에 유리하다는 정략 때문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12.10.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입구에서는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계속 개최됐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천 5백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였다고 하는 소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주도하는 도심 시위는 선량한 시민들을 계속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심판을 빨리 끝내라고 강요하면서, 동시에 박 대통령의 퇴진도 계속 압박해 나갈 것이라 한다. 민주, 국민, 정의당 등 야당의 노선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경철은 이날도 12만이 모였다고 추산하였고 ‘주최’ 측은 60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은 대통령

탄핵이 ‘선동에 몰려서 강행되었다’는 이유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우파 단체들의 시위도 열렸다. 경찰추산 5만여 명이 운집한 이들의 시위는 청계천 입구에서 을지로 종로를 행진하는 시위였다.

특이한 현상은, 좌파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에는, 명색 나라를 위한 시위라면서도 단 한 장의 태극기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들 우파 단체의 시위는 태극기 물결을 이루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좌·우 이념대립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여실히 상징하는 정경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성탄을 송축하는 복된 계절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러한 일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세태 속에서 선량한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고 탄식이 절로 나온다. 시 90-100편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열방 중에서는 이브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찌로다”(시 96: 10)하였다. 이미 오셨고, 또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친히 통치하소서. 그리하여 만 백성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 의지하는 사역자’ 다짐

전국여교역자국(국장 탁정신 목사)에서는 지난 12월 12일(월) 오전 11시 일산 온선교회(담임 탁정신 목사)에서 2016년 송년 모임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깨우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고분 정부용 목사(사단법인 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대림펜셀교회 당회장)는 설교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함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꾀계를 물아내고 어려운 모든 환경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한 뒤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오직 한길로 나아가는 진실된 교단에 속해 있음을 감사드리고 더욱 진실한 주의 종이 될 것과 지도자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된 지도자 성령적 지도자, 성경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국장 탁정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 해 동안 베풀

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것은 돌아보아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 알찬 새로운 한해를 맞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축복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알찬 새해를 열어가길 말했다.

아울러 “기독교신앙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이여야 한다”고 전하고 “사람의 운명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데 기독교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노선을 견지하며 바른 성경관, 바른 기독교관, 바른 선행을 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맡겨진 사명에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국여교역자회는 여성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성목회자의 리더십을 심본 발휘하여 섬세하고 포근하게 성령충만한 사역자로서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 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목회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시 2017년 1월 5일(목)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 02)2675-5181~3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중경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개로 참석여부를 12월 22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조남영
총무 목사 최형택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조용목 목사·최완기 목사 공저) 출판기념회



지난 12월 11일 은혜와진리교회 주일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세계하나님의교회 총재 조지오 우드목사와 통일위원장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하나님의교회 한미총회 전직 총회장, 미국 샌프란시스코 리지, 이반셀 대학교 이사 역임)가 저술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출판기념회와 교역자, 장로 송년기도회가 지난 12월 8일(목) 저녁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렸다.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장로전목회 회장 김재홍 장로의 기도, 세계선교연합회 그레이스 앤 트루스 선교성가단과 장로성가단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조지 오 우드 목사(세계하나님의교회 총회 총재, 미국하나님의교회 총회장)와 김남수 목사(뉴욕 프레스비리언 교회 담

장)가 축하 말씀을 전했다.

우드 목사는 “한국의 은혜와진리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큰 기쁨이다. 올 때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게 된다. 주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교회 사람에게 가는 몽클한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오늘 세계 212개 국가에 37만 2천여 교회, 6천 8백만 명의 성도가 속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50초마다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고 20초마다 새 신자가 탄생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놀라운 부흥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여러분처럼 신실하게 성도를 섬기며 복음전파에 헌신하는 분들을 하나님께

서 기뻐하시고 진히 일해주시기 때문이다”며 교역자와 장로들을 격려했다.

출판기념회에서 조용목 목사는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설명하고 추천사를 써주신 조지 오 우드 목사와 김남수 목사에게 책을 증정하였다.

최완기 목사는 “조용목 목사님께서 미국하나님의교회 100주년 기념대회 설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성령과 성령의 사역을 다룬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신학교와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서로 다른 것이 많아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책을 출판할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이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여 저술에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교파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깨우침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했다.

미국하나님의교회 총회장이자 세계하나님의교회 총회 총재인 조지 오 우드 목사는 지난 12월 8일(목)부터 11일(주일)까지 3박 4일간 은혜와진리교회를 방문하여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부흥성전 등 여러 교회당을 찾아 봉사하는 성도들과 대화하며 격려했다.

은혜와진리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우드 목사는 12월 11일 주일 2부 오전 8시에부터 6부 오후 3시에까지 성도들에게 권능의 말씀을 선포했다.

우드 목사는 은혜와진리교회 담회장 조용목 목사와 성도들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세계 하나님의교회와 교세와 현황을 설명하며 이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한국 은혜와진리교회가 있으며, 또한 세계하나님의교회 총회의 이사로 헌신하는 조용목 목사의 사역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되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가평순복음교회 제직 임직, 사명감당 헌신 다짐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임흥택 목사) 가평순복음교회(담임 조남영 목사·교단 총회장)는 지난 11월 27일(주일) 오후3시 동교회에서 지방회 주관으로 장로 정립, 집사안수, 권사취임의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순서로 드려진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유석구 목사(에비다순복음교회)의 기도, 재무 이봉기 목사의 성경봉독, 가평순복음교회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이어서 지방회장 임흥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 목사는 롬 16:1-2 말씀을 본문으로 ‘천거 받은 자 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 지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회가 천거하였음을 인식하고 천거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을 전제한 후, 제직은 제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함은 물론 제자가 가야 할 길을 흐트러짐 없이 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 직분을 받는 모든 임직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호, 양육할 것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모든 성도는 본



의 말씀처럼 직분자들을 합당한 예절로 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협력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평순복음교회가 될 것을 축복하였고 모든 임직자와 성도들은 기쁨으로 “아멘”하며 화답하였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장로정립(장동관, 천동수)과 집사안수(최용호, 권창성) 그리고 권사취임(홍명순, 권순애)의 순서로 임직자들의 서약과 교우들의 서약이 있었으며 지방회 안수위원(위원장 조남영 목사)들의 안수, 담임목사의 공로, 임직증서 및 패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이어서 본 교회 이회주 집사의 축가로 축하의 분

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경기지방회 증경회장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교회)의 권면의 말씀과 경기중앙지방회 증경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축사가 진행 되었고 예물증정 및 임직자 대표 천동수 장로의 인사말이 있은 후 지방회 회계 김순형 목사(아침빛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가평순복음교회 위신팀의 은혜로운 몸 찬양, 끝으로 지방회증경회장 윤장현 목사(송전교회)의 봉헌기도와 축도로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를 마친 후 모든 참석자들은 가평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교회 교단가입 창립감사예배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임흥택 목사)는 지난 12월 5일(월) 오전 11시 행복한교회(담임 윤병준 목사) 교단가입 및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재무 이봉기 목사(순복음보리울교회)

의 찬양인도와 지방회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유석구 목사(에비다순복음교회)의 기도, 서기 신근철 목사(순복음예수생명교회)의 성경봉독, 이어 지방회장 임흥택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고전 3:10-15 말씀을 본문으로 ‘잘 세우자!’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굳게 하며 핏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름답게 세워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잘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한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금 같은 믿음과 은 같은 믿을 보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질렀다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회계 김순형 목사(아침빛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 증경회장 윤장현 목사(순복음송전교회)의 권면과 축도로 교단가입 및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마치고 행복한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제9회 한국기독교문화예술대상대회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오후5시 ❖ 장소 :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02-923-6481)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임원진 ❖

❖ 예술대상 수상자 ❖

명예총재



조용목 목사

부총재



전덕기 회장

이사장



이상열 목사

상임회장



한인수 장로

대회장



홍정선 목사

문학부문



원용순 장로

음악부문



최영섭 작곡가

연극부문



김석훈

방송부문



전혜진

연출부문



이민욱 감독

문화선교부문



최일도 목사

문화경영부문



김용석 이사장

운영이사장



김광호 대표

운영이사



홍순만 이사

원장



안영화 교수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

기획실장



신동명 이사

※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초청장이 없으시면 입장이 절대 불허 됩니다.
※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 행사진행 5시 이후로는 입장을 불허 합니다.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협찬 : 福新新聞 국민일보 목양신문
벤엘메모리얼파크 도모디자인그룹 도서출판 지원사



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3길 13~14 (201호)
TEL. 02-2271-5101, 010-5284-5505